

## 심청이와 황진이

신동호 시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문화협력위원장

culture | art

오랫동안 북녘의 문학은 보이지 않는 장벽에 가로막혀 있었다. 그것을 굳이 북의 체제 때문이라든지, 남쪽의 체제 때문이라고 분석할 필요는 없다. 역사와 신화를 복원하고 이를 통해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 이렇게 생동하는 상상력은 바로 문학이다. 남북문학교류의 핵심적 지점은 후대의 작가들에게 통일시대의 상상력을 주는 것이다.

몇 해 전, 심청이가 역동적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다. 작가 황석영의 『심청』을 통해서다. 가장 이상 이데올로기의 효녀 심청은 더 이상 순종적이지 않았다. 황석영의 손을 거친 심청은 19세기 동아시아라는 시공간을 여인의 몸으로 넘나들며 근대화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중국의 진장과 난징을 거쳐 타이완의 지룽, 싱가포르와 나가사키를 거쳐 제물포로 돌아오는 여정이 심상치가 않았다. 그렇다고 거창한 것도 아니었다. 심청은 창녀가 되어 있었고 근대화를 느낄 정도로 의식이 있지도 않은은 물론이다. 그저 자기의 몸 구석구석에 시대의 편린을 기록하고 있다. 삶 자체가, 주어진 환경들이 심청을 여기저기로 이끌었을 뿐이다.

그런데 평범한 우리는 심청을 통해서 잃어버린 '나'를 잃어버린 공간과 서사를 동시에 만나고 있다. 그해, 세상은 그저 말뿐으로 동북아시대를 운운하고 있었다. 어찌 그것이 말로 되는 일이라. 우리를 한반도 남쪽이라는 울타리에 가둬 놓은지 몇 십 년이었던 말인가. 심청이 그렇게 '웃기지 마라. 동북아는 이미 내가 가냘픈 몸으로 일상을 살던 공간에 불과하다'라며 등장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더 오래 울타리 안의 세계를 벗어날 생각도 못했을 터이다.

### 우리 시대의 모던보이들

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잇는 고리라고, 책상 가운데를 칼로 그어대며 들었던 말이다. 그만큼 다양한 문화의 연결통로가 되고 그래서 침략도 잦다고, 나도 모르게 선을 넘어간 공책 때문에 짝과 다투느라고 그 애길 흘려들었나 싶다. 현실의 한반도는 그렇지가 못해서 대륙과의 연결고리를 애써 끊어버리고, 과거의 역사와 단절하고, 항공로와 선박의 운항을 통제함으로써 실제로는 문을 꼭꼭 걸어 잠그며 살아왔다.

결국 친일문인이 되었지만 근대적 인간으로서의 춘원 문학은 세계와 소통했다. 단순히 춘원의 『유정』을 애정소설로만 볼 수 없는 이유는 춘원 스스로 상상력의 공간을 한계 짓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니 적어도 분단 이전의 한반도의 삶은 그랬다. 『유정』의 최석과 남정임에게 세계는 열린 공간이었다. 동경, 만주, 바이칼호수, 시베리아는 지도에 존재하는 무균질의 땅이 아니었으며 일상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살아있는 땅이었다. 사랑하는 이를 찾아 바이칼호수를 향해 길을 떠나고, 사회적 편견을 이기지 못하고 시베리아를 방랑하는 소설의 인물들을 지금 남쪽의 우리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문학 속의 주인공들뿐이었을까. 춘원 스스로도 동경과 상해 생활을 통해 세계사의 흐름 속에 있었다. 당시의 이야기를 거슬러 가다보면 우리는 지금의 사고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인간들을 만난다. 특히면 보따리를 싸서 만주로 향하는 사내들이 있었는가 하면, 온 집안 식구들을 이끌고 간도로 향하는 가난한 살림들도 있었다. 머릿기름을 바르고 남양 등지를 헤매던 젊은 날의 벽초 홍명희, 만주의 신흥무관학교를 거쳐 연안 팔로군의 본부에 등지를 틀었던 『아리랑』의 김산 등 어찌 이루 다 말할 수 있으랴. 벼농사의 북방한계선을 북위 58도까지 넓힌 안중근 의사의 두 동생 정근, 공근 형제도 있었으니 한반도 남쪽의 땅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 몸 속에 흐르는 서사의 강물 탓이다.

분단 이전의 일제시대, 돌아켜보면 그 시대 작가들의 정신은 실로 글로벌 했다. 일제에 대항했을 뿐 아니라 변화하는 세계의 중심에 서기 위해 끊임없이 방황하고 고뇌했다. 『봄봄』의 김유정은 근대사회의 소설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던 모던보이였다. 그의 소설은 소재를 농촌으로 했지만 마치 지금의 영화처럼 근대의 대중정서에 밀착했다. 무척이나 고답적인 그의 산문에 비해 한문투가 완전히 사라진 그의 소설은 당대 그 어느 나라의 소설보다 모던했다. 분단은 김유정이라는 모던보이를 농촌작가로 만들어버렸다.

영화 <집으로>를 농촌영화라 부르는 것과 어찌 같지 않으랴. 그렇게 이효석도 농촌작가가 되었고 근대사회를 계몽하고자 했던 심훈의 『상록수』, 이기영의 『고향』 같은 역할들 또한 농촌소설이 되어버렸다. 이뿐 아니다. 분단은 작가의 정신을 축소, 왜곡했다. 김기림의 『기상도』는 엘

리어트의 『황무지』를 흉내 낸 시라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친다. 이상의 시는 고통스러운 시대를 반영한 난해함으로 적힌 곳이 많다. 아니다, 『기상도』는 엘리엇을 우습게 본 젊은 영문학도의 세계를 향한 도전이었고, 난해함으로 가득한 당시 일본 시들을 향해 이상은 “나는 너희들보다 더 어렵게 쓸 수 있어”라고 조선문학의 자존심을 한껏 세운 것이다.

그렇게 분단 이전에 만주에는 안수길, 최서해, 강경애가 있었고 더 멀리 고리끼 사범대에서 젊은 조기천(서사시 『백두산』의 작가)이 러시아 문학에 심취해 있었으며 김사랑은 중국혁명의 한 가운데에서 중국문학의 기운을 흡수하고 있었다. 영변에는 물론 소월이, 농촌 각지에는 천세봉(북 소설 『석개울의 새봄』 작가) 같은 청년들이 호시탐탐 작가가 될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을 찢어놓아 서사가 서정과 만나지 못하고, 리얼리즘이 모더니즘과 만나지 못하고, 혁명정신이 나른한 일상과 만나지 못하고, 토속언어가 새 시대의 언어와 만나지 못하게 되었으니, 안타깝지만 분단 탓이다.

### 서사에 눈을 뜨다

작가 황석영은 1989년 3월 느닷없이 방북한다. 물론 남북 작가회담의 성사와 문화예술 교류가 명분이었다. 그는 스스로를 ‘분단시대의 작가’로 규정하고 분단 상황에 정면으로 맞섰다. 그로부터 4년 동안의 망명생활, 1993년 귀국을 단행하여 1998년 석방될 때까지 5년여의 세월을 영어의 몸으로 간헐하였으니까 10년 세월동안 방북의 기억을 곱씹었을 터이다.

그 결과를 나는 그의 소설 『손님』과 『심청』으로 본다. 어쩌면 황석영 스스로 남북 문학교류의 물꼬를 트고, 문학교류가 가져올 결과 또한 스스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것은 진정 세계관의 확대와 상상 공간의 확대를 뜻한다. 작품의 교류, 작가의 만남은 지극히 당연한 과정이겠지만 남북 작가 스스로 자신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파괴력 있는 문학교류가 아닐 수 없다.

『손님』은 황석영이 2001년 세상에 내놓은 장편소설이다. 황해도 신천을 배경으로 한 이 소설은 양민학살이라는 무거운 소재를 황해도 굶을 활용해 그려내고 있다. 황석영은 여기서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무서운 전염병이던 마마를 ‘손님’이라 부른 것에 착안하여 기독교도 손님이

지난 7월 20일 남쪽의 작가들이 평양으로 향했다. 해방 후 1948년 4월 30일 '남북 제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 '남조선문학단체총연맹'이 참석해 남북 작가들이 만난 이후 처음이다. 그 사이 1989년 '민족 문학작가회의'가 남북작가회담을 제안한 일이 있었으나 본격적인 만남은 이제 비로소 이뤄진 것이다.

## Magnification

요, 사회주의도 손님이라 규정한다. 신천학살은 결국 우리 땅에서 손님들 간의 싸움으로 벌어진 비극적 사건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나는 황석영의 방북을 단순히 넘어갈 수 없다. 뿌리 없이 받아들인 남의 사상이 얼마나 우리를 스스로 망가트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 소설은 남북을 아우르지 못했다면 탄생할 수 없었다. 『손님』은 오랫동안 이 땅에서 정착한 듯하지만 부박하게도 이것들이 결국은 내부의 싸움을 만들고 말았다는, 혹은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가슴 아프게 건드리고 있다. 전통과 문화라는 자기 무게 중심을 가지고 민족적 가치와 이념을 만들고자 하고 있다. 이것은 <객지>나 <열애>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황석영의 확신이다. 방북을 통해, 망명 생활을 통해 얻어진 세계관과 상상력의 확대로 분단세월 동안 접근할 수 없던 영역으로 그는 다가갔다.

사상의 주체성은 서사가 준다. 역사와 신화를 복원하고 이를 통해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 이렇게 생동하는 상상력은 바로 문학이 준다. 분단의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음으로써 황석영은 공간적 상상력의 한계, 이데올로기적 상상력의 한계를 극복했고 분단시대의 작가에서 통일시대의 작가로 변화했다. 그러니까 황석영의 심청은 분단 이전의 삶과 분단을 극복하는 삶, 그 60년의 공간을 이어주는 우리 시대의 누이가 아닐 수 없다. 남북 문학교류의 핵심적 지점이 바로 여기다. 후대의 작가들에게 통일시대의 상상력을 주는 것.

### '조선문단' 과 천세봉

지난 7월 20일 남쪽의 작가들이 평양으로 향했다. 해방

후 1948년 4월 30일 평양에서 있었던 '남북 제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 '남조선문학단체총연맹'이 참석해 남북 작가들이 만난 이후 처음이다. 그 사이 1989년 '민족문학작가회의'가 남북작가회담을 제안한 일이 있었으나 본격적인 만남은 이제 비로소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참으로 오래 기다려야 했다. 그 기다림을 나는 정치상황 탓으로 돌리고 싶지는 않다. 정치상황이나 국가보안법 때문에 교류를 하지 못했다면 문학의 존재의미가 어디 있겠는가. 시대를 예민하게 진단하고 시대의 한계를 넘어 상상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 문학이라면 당연지사 문학이 무엇보다 앞서 분단에 저항해야 했다.

오랫동안 북녘의 문학은 장벽에 가로막혀 있었다. 그것을 굳이 북의 체제 때문이라든지, 남쪽의 체제 때문이라고 분석할 필요는 없었다. 서로 외면했을 뿐이었다. 가령 북의 김일진이라는 지휘자는 남쪽에서만 모른다. 독일의 카라얀 국제 지휘자 대회에서 일등을 차지한 그는 유럽과 일본에서 이는 사람은 다 이는 인물이다. 반면 북에서도 남쪽의 작가들을 다 알 수는 없을 터이다. 80년대 말 월북 작가들의 작품이 해금되면서 관심이 일어난 북녘의 문학은 대학생들로부터 시작된 '북한 바로알기운동'을 통해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했다.

3대 혁명노작으로 알려진 『피바다』 『꽃피는 처녀』 『한자위단원의 운명』을 비롯해 백남룡의 『벗』, 남대현의 『청춘송가』, 홍석중의 『늬새바람』 등이 이때 남쪽에서 출판되었다. 북에서도 홍희담의 『깃발』, 김하기의 『살아있는 무덤』 등이 인민들에게 읽혔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때로는 북녘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대중적으로 북녘 작품들이 번져갔지만 정작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외면당했다. 아

에 관심을 두지 않은 부류야 그렇다 치고 백낙청, 엄무웅 같은 진보를 자처하는 평론가들조차 북녘 문학을 폄하하기에 바빴다. 문학이라 볼 수 없다는 인상비평에서부터 루카치를 들이대면서 근대문학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그럴듯한 비평까지, 잘 쌓아온 문학 기득권에 북녘의 문학이 들어와서는 안 될 듯 소리를 높였다.

몇 년 전 나는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연변도서관에서 일제시대 만주국 시대에 발간된 <만선일보>를 본 일이 있었다. 거기에서 나는 '한성문단'이라는 표현에 놀랐다. 왜 '조선문단'이 아니고 '한성문단'이었을까. 그랬다. 일제시대 만주에서 활약하던 작가들에게 만주라는 공간은 문화의 변방이 아니라 주체적 공간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당시 한성에 형성된 문단세력을 '조선문단'이라 표현하지 않고 '한성문단'이라 섣터화 시켜 불렀던 것이다. 기실 당대의 '조선문단'이란 한성과 평양, 만주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내지에서 활약하던 이들까지를 포함한 광범위한 개념이 아니고는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확대된 문화의 전통은 해방과 분단이라는 과정을 거치며 가장 최소한으로 축소되고 말았다. 일제시대로부터 해방공간까지 많은 이들이 서울을 떠났고 남은 쪽정인들이 '조선문단'이라는 이름을 슬쩍 자기들의 명함 한쪽에 적어놓았던 것이다. 어쩌면 지금까지 문학교류를 가로막은 건 스스로 한반도 남쪽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스스로를 걸머졌던 작가들 스스로였는지 모른다. 그들이 오늘 남북작가대회에 주변으로 참가하게 되니 이제 우리 문학이 잃어버린 영역을 되찾아가는 게 아닌가 싶다.

자세히 살펴보면 북녘의 문학이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다. 한설야, 이기영, 홍명희 같은 카프의 맹장들이 월북하여 쌓아온 전통이 녹아있고, 주체사상의 성립과정에서 일부 변질되긴 하였으나 대륙과 역사로 이어진 서사가 살아 있다. 또한 생활 형태의 변화로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 언어의 형상적 사용은 놀랄만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놓칠 수 없는 특징은 문학 창작과 향유의 대중화에 있다.

북의 문학을 읽다보면 참으로 놀라운 것이 그 대부분이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이다. 흔히 알려져 있듯 당과 수령에 대한 찬양의 글이 전부가 아닐까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편견을 버리시라고 권하고 싶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북의 문학잡지는 『조선문학』 『청년문학』 『통일문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작가대회

학』 『아동문학』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통일문학』이나 『아동문학』은 그 특성과 대상이 정해져있으니 제외하고 『조선문학』과 『청년문학』을 통해서 보면 80퍼센트 이상이 노동자, 농민의 이야기이거나 그들이 직접 쓴 작품들이 차지한다.

특히 『청년문학』의 경우는 가히 노동자 문예지라 할 만하다. 지방의 한 공장에서 일하며 글을 쓰는 노동자, 협동농장에서 일하는 농민, 군인과 학생들이 광범위하게 작가들로 참여하여 『청년문학』을 만들고 있다. 북에서는 이들을 문학통신원이라 부른다. 각 기관이나 단위에 속한 통신원들은 스스로 작품을 쓰는 일이나 자기의 직업과 상관없이 문학과 관련된 일에 관심을 갖고 문학을 하고자 하는 이들을 돕는 일까지 병행한다. 이러한 분위기가 없었다면 천세봉이라는 작가는 탄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작가 천세봉은 교육받을 기회를 갖지 못한 농촌총각에서 김지하 시인이 수상한 바 있는 제3세계의 노벨문학상 로터스상을 수상한 세계적 작가가 되었다.

### 서울로 온 황진이

흔히들 남북문제에 있어서 문화교류는 다른 영역보다 쉽지 않겠냐고 한다. 그러나 이 말은 두 체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오는 말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문학은 프로파간다의 선두에 서 있다. 오히려 정치, 경제보다 대중과 만나는 지점이 넓음으로 인해 체제 이데올로기에 더 민감하다. 따라서 문화의 영역이지만 사상의 영역이기도 하고 언론의 영역이기도 하다. 문화를 취미생활 정도로 여기는 마음으로는 도무지 북의 문학을 이해할 수 없을 지경이다. 그러나 프로파간다라고 북의 문학이 이념만 앞세우는가? 그렇지도 않다. 진정한 프로파간다는 대중적일 수밖에 없으며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예술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북녘의 문학이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다. 한설야, 이기영, 홍명희 같은 카프의 맹장들이 월북하여 쌓아온 전통이 녹아있고, 주체사상의 성립과정에서 일부 변질되긴 하였으나 대륙과 역사로 이어진 서사가 살아있다.

## Tradition

담보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의 묘사와 형상화 능력을 통한 대중성은 남쪽 작가들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이다. 독일 통일 후, 동독 출신 작가들이 베스트셀러 작가의 반열에 올랐다고 하니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어렵지 않게 여겨졌던 문학교류가 난관을 겪은 건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곧 앞으로 남북문학 교류가 이어지면서 가장 크게 부딪칠 문제이기도 하다. 문학이라는 이름으로 그 영혼들은 감동하지만 혹여 자유로운 사색을 상징하는 남쪽 작가들이 사회주의 문학에 고단해 하거나 프로파간다의 선두에서 있는 북쪽 작가들이 자유주의에 눈살을 찌푸릴 것을 걱정했다. 그러나 그것은 기우였나 보다. 시대의 분위기가 분단을 극복해가면서 남북의 문학은 열정적으로 가슴을 열었다. 그 상징적인 사건이 홍석중의 『황진이』다. 그는 기생 황진이를 관습에 저항하고 시대와 부딪치는 인물로 만들어 그의 질곡어린 삶을 역사적 필연성으로 끌어간다. 그럼으로써 황진이는 흥미로운 인물에서 역사에 존재했던 실체가 되었다. 지난해 남쪽의 권위 있는 상인 만해문학상을 받았고 소설 그 자체로도 인정받아 수 만권이 판매되었으니 어찌 사건이 아닐 수 있을까.

홍석중은 벽초 홍명희의 손자다. 황석영의 방북 때 가장 깊은 우정을 나누는 문우이기도 하다. 아버지 대신 홍기

문이 “벽초의 대를 이은 건 내가 아니고 황석영이다” 했더니 자존심도 상했을 것이며 황석영이 가질 수 없는 언어의 풍부함으로 그를 놀래킬 요량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이미 오래전 이태준의 『황진이』를 극복하고 할아버지 벽초가 마지막 작업으로 남겨놓은 것을 그가 이뤄내 벽초가 쓰고자 했던 역사소설의 형식을 완성해냈으니 어찌 홍석중의 작품을 북의 성과라고만 할 것인가.

황진이가 서울에 온 것은 단지 작품 하나가 소개된 그 이상을 의미한다. 1989년 황석영과 홍석중 두 작가의 만남은 십년이 지나 『심청』과 『황진이』를 낳았다. 이 두 작품은 분단시대 우리의 작가들이 잠시 잃어버리고 살았던 공간과 시간, 세계를 자유롭게 해석하는 상상력을 복원시켰다. 이제 수 백 명의 작가가 북의 작가들을 만나러 평양으로 갔으니 이제 곧 걸출한 작품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분단의 시간이 남북에서 서로 자기의 역량을 쌓아왔던 시간으로 긍정하면서 남북뿐만 아니라 대륙과 해양의 문화를 역동적으로 수용한다면 세계 어느 나라의 작가인들 한반도를 부러워하지 않겠는가. 문학의 만남으로 작가들이 이뤄놓은 상상력의 복원이 정치,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힘으로 발현될 때 문학은 그때서야 한숨 돌리리라. ✎